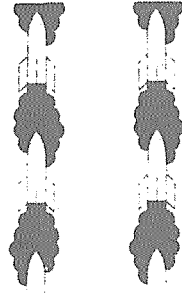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(92. 9. 1~9. 30)

9. 1 : 관세청, 관세환급신청시 소요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낭비를 막기위해 환급특례법시행세칙을 개정,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물품에 대해선 9월 1일부터 소요량 증명신청서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고.
9. 3 : 공진청, 110V/220V 겸용 전기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입금지 시기가 확정, 냉장고 등 11개 전기용품은 '93년부터 220V만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.
9. 4 : 공진청, 「KS」표준 「품」 등급 「전」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요건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 공장검사가 폐지되는 등 공장사후관리제도가 전면 개선된다고.
9. 4 : 관세청, 위장수입 가능성 높은 VCR 등 62개 품목을 위장수입가능품목으로 추가지정, 이들 품목에 대해 통관검사를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고.
9. 4 : 산업研, 「주요 지역별 시장 점유율 변화와 해외시장 진출전략」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RCA지수가 국내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'85년 254.6에서 '90년 253.0으로 다소 낮아진데 비해 경쟁국인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은 같은 기간 각 9.1과 176.8에서 104. 206.5로 높아졌다고.
9. 5 : 상공부, 수입부품을 계속 사용하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관련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의무화하고 우선 1차로 수입량이 큰 자동차의 자동차트랜스 미션, 에어백 등 10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고.
9. 6 : 상공부, 제2차 기계류, 부품,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유압액추에이터 등 개

발대상품목 279개 신발성형스프레스 등 양산 대상 품목 112개 등 모두 391개 품목을 선정 고시했다고.

9. 9 : 체신부, '95년까지 안산, 창원 등 15개 지역을 지역정보화 도시로 선정 중소기업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.
9. 14 : 상공부, 지난 '90년 이후 자동화시설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동화 지원시책 효과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지난 '88년 34.3%에서 '90년엔 36.5%를, 8월 말에는 43.6%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9. 17 : 산기協, 국내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악화로 연구개발투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9. 19 : 정부,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경상지출비의 5%와 증가지출비의 30

%를 중소기업은 경상비지출비의 10%나 증가지출비의 35%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.

9. 22 : 공진청, 기존제품보다 20% 정도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의 KS규격을 제정 고시했다.
9. 22 :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에 필요한 4개업종 116개 품목을 새로 지정해 올해 50%, '93년에는 40%의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.
9. 22 : 생기원, '92년도 신기술기업화지원 대상과제로 16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생기원내에다 신기술기업화단지를 조성 대상기술개발사업자를 수료하는 등 TI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.
9. 24 : 상공부,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PCB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키로 하고 '96년까지 다층 PCB의 비중을 전체생산의 60%까지 끌어올리고 고도기술제품인 10층 이상의 다층 PCB양산수준까지 기술력을 제고, '96년까지 PCB 수출을 3억달러로 증대키로 했다고.
9. 28 : 상공부, '86년 기계공업진흥법, 전자공업진흥법, 섬유산업근대화촉진법 등 8개 업종별 육성법률을 통폐합해 제정한 공업발전법의 개정작업에 착수 했다고.
9. 30 : 상공부, 고의적으로 국산개발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, 병역특혜업체 추천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.